



시로 읽는 성보순례
정토사 흥법국사실상탐
국보 102호 정토사 흥법국사실상탐
고려시대 ▶2면

현대불교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해 주기를 바라지 말라.
순종해 주면 마음이 교만해지나니,
내 뜻에 맞지 않는 사람들로써 숲을 삼아라.
「보왕삼매론」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56년 단기 4345년(음력 9월 24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제913호 2012년 11월 7일 수요일

전통사찰 목조문화재 방재 대책 점검 '시급'

내장사 대응전 전소 등 사찰화재 잇달아

전북 정읍 내장사 대응전이 전기합선으로 인해 10월 31일 전소됐다. 내장사 대응전은 지정문화재는 아니지만 일제 강점기 민족종교 보천교의 건물을 옮겨온 것으로 건축 미가 뛰어난 전각으로 알려졌다. 조계종 문화부에서도 근대 문화유산 등록을 추진 중에 있었지만, 이번 화재로 등록 추진은 물거품이 됐다.



10월 31일 전소된 내장사 대응전. 사찰과 문화재 방재 시스템의 총체적 점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지난 10월 5일에는 국보 67호 화엄사 각황전을 前 태고종 승려가 방화했다. 다행히 방화치리와 초동 진화로 문이 그을리는 데 그쳐졌지만 상황을 감지하기 위한 화재감지기는 잦은 오작동으로 꺼놓은 상태였다. 또한 범인을 식별하기 위한 폐쇄회로 TV(CCTV)도 얼굴 인식기능과 적외선 감지기능이 없어 소용이 없었다.

다수 문화재 방재 시설 오작동
중단 방재시스템도 우려 많아
문화부 "시스템 보완·개선 중"
사찰에 맞는 방재 매뉴얼 필요

광부도 올해부터 10년간 전통사찰 방재예측시스템 설치 사업을 진행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지적도 적지 않다.

실제 조계종 중앙종회 제192차 정기회 총책질의에서는 전통사찰 방재예측시스템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종회의원 주경 스님은 "시스템을 설치한 상당수 사찰에서 시스템의 불안정, 부풀려진 가격, 사후 관리 등 총체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고 질의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문화부는 "각 사찰마다 환경이 다르고 설계·예산에 차이가 있으며, 승인된 설계도와 다르게 공사가 진행했다면 준공 승인을 득할 수 없다"며 "자문회의, 문화체육관광부와 회의 등을 통해 기존 시스템을 보완·개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조계종 문화부가 추진하는 방재예측시스템은 현재 총 30여 개의 사찰에서 이를 갖추고 있으며 올해 안으로 98개 사찰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박희승 문화부 차장은 "내장사 대응전은 전기 누전으로 인한 아크가 발생해 일어났다. 통합

적이고 표준화된 방재시스템이 필요하다"며 "10년 사업으로 계획되었기 때문에 설치 속도가 너무 느려 우리 문화재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좀더 시급히 예산을 확보해 빠른 시일 내에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업 감리·감독 기구 운영 >현장 테스트 등을 통한 설비 보완 >중단·문화재청·문화체육관광부 공동 방재시설 설치 기준 및 매뉴얼 마련 >권역별 시범 사찰 선정 등을 향후 대책으로 제시했다.

이런 조치들이 이뤄지고 있지만, 주요 목조문화재와 전통사찰 방재 대책에 대한 우려는 끊이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전문가들은 사찰들을 유형별로 그룹화해 방재 시스템을 설치하거나 매뉴얼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소방차 진입 여부를 구분해 진입이 어려운 사찰은 수막형성이 가능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등 사찰 환경에 맞는 방재 시스템이 만들어 매뉴얼화돼야 한다는 것이다.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은 "사찰은 지금도 수평 공간으로서 성격을 가진 살아 있는 문화재"라며 "아무리 좋은 방재 시스템도 사람이 제대로 관리, 사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제대로 된 매뉴얼 정립과 인식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소중한 문화재를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종일 기자 molp79@hyunbul.com



순금비단 고려불화 첫 발견

정우택 교수 日서...10일 학술회사 소개

비단에 금가루로 그린 고려불화가 최초로 발견돼 학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우택 동국대 미술사학과 교수는 11월 1일 일본 야마나시현 한 사찰에서 고려 후기 공민왕 때 제작된 고려불화를 찾아냈다고 밝혔다.

이 고려불화는 아마타어래불과 관음보살 등을 그린 '아미타삼존도'로 사찰 법당의 불상 뒤에 있던 유리장에 보관돼 있었다. 금가루로만 선을 그린 불화는 일반 불화보다 고난도 기술이 필요해 문화재적 가치가 높다. 이번에 발견한 고려불화는 1359년 그려진 것으로 고려불화 특유의 당초원형무늬를 비롯해 원형무늬만 7종이며 연화당초, 모란당초 무늬 등 고려 불화 가운데 가장 많은 무늬를 담고 있다.

정우택 교수는 "고려불화는 전 세계에 160여 점이 있지만 금가루로 그린 고려불화가 나온 것은 처음"이라며 "섬유에 그린 점이나 금가루를 활용한 점은 고려불화의 영역을 넓힌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또 "이번에 발견된 아마타삼존도는 후기 고려불화 중 연대가 가장 최근의 것"이라며 "조선불화로 넘어가는 과정을 연구하는데도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이 내용을 10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리는 동양미술사학회 정기학술발표회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탁상행정엔 신음하는 갓바위 부처님

경산시, 대입 수능 연등 불법으로 규정 '논란'

팔공산 갓바위 부처님이 탁상행정과 오묘에 신음하고 있다.

경산시(시장 최병국)는 10월 29일 팔공산 선본사(주지 덕문)에 '관공석조여래좌상 참배장 내 불법시설물 원상회복 조치'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왔다.

경산시는 공문에서 "경산 팔공산 관공석조여래좌상은 보물 제431호로 참배장 내 시설물 설치하는 문화재 보호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현상변경 등 허가를 받아 설치해야 한다"며 "11월 25일까지 불법으로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라"고 통보했다.

향후 시설물 설치할 경우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런 경산시의 통보에 선본사는 '어이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가설물은 해마다 대입수험능력시험과 제야 소중환 문화제를 지킬 수 있도록 돌연 임시가설물과 연등을

철거하라는 것은 심각한 종교 방해 행위라는 것이다.

선본사 주지 덕문 스님은 "갓바위 부처님께 연등을 올리는 것은 오랜 전통으로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며 "경산시에 주장대도라면 전국 문화재

25일까지 원상복구 공문 통보

선본사 "종교행위 방해" 반발

보유 사찰과 전통 사찰들의 연등들도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인가"라고 힐난했다.

조계종도 관계기관과 이번 문제를 논의할 것을 계획이다. 박성준 문화부 팀장은 "부처님 앞에 걸린 연등은 연등공양이라는 종교적 의미물을 가진다"며 "이를 상시 구조물로 부처님오신날을 전후로 설치했다가 기한이 지나면 자진 철거해왔다. 그럼에도 돌연 임시가설물과 연등을

일축했다. 불교계 안팎으로 문제가 커지고 있지만, 경산시 입장은 단호하다. 여전히 연등을 설치하게 한 가설물은 불법이라는 것이다.

박창현 경산시 문화재담당 계장은 "서울신문 지방기자의 기사를 바탕으로 민원이 있어 공문을 보내게 됐다"며 "문화재 사찰과 전통사찰에 불법으로 설치된 연등이 있다면 이들 역시 모두 문화재 현상변경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 "불교계에 문제 제기도 있어 문화재청에 정식으로 자문을 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갓바위 케이블카 유지추진위원회가 '케이블카 설치를 위해 조계종과 협의를 마쳤다'는 허위 사실 유포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지역 일간지 인터넷판에 11월 2일 자로 보도됐다.

덕문 스님은 "조계부 동의와 협의가 어떻게 당해 사찰 주지도 모르게 이뤄졌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신종일 기자

비구니 스님, 순승 파승 본격화

11월 말 모집 공고

10여년 간 파승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던 비구니 스님의 군중교 파승 문제가 2013년 풀릴 전망이다.

전국비구니회 회장 명우 스님을 비롯한 임원단 스님 20여 명은 10월 28일 평택 2학대를 방문해 군장 병들을 위로했다.

전국비구니회가 군부대 위문에서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

이날 비구니회 회장 명우 스님은 "비구니 파승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중교구에서는 비구니 파승이 시급하는 입장과 함께 2013년 비구니 군승파승을 본격화할 계획을 밝혔다.

장성화 조계종 군중교구 정책기획실장은 "국방부와 비구니 스님들의 파승에 관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문제없다고 결론났다. 총무원·전국비구니회 등과 협의해 공청회 등을 열고 11월 말 비구니 군종장교 파승 공고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913호 INDEX

종합 2·3
조계종 15대총회 하반기 원 구성
조계종 노동위 노동문제 공청회
존카밧진·마티유 리카르 방한
포교원 어린이 어를 개발

사법세계 5
108산사순례회 창립6주년 법회



신행 6
서남권 포교중심도량 국제 선행터
한마음과학원 우수 사례 순례

화엄만다라 16·17
동국대 정각원장 법타 스님

현대불교 법공양
ARS 후원
060-700-1080

Jon Kabat-Zinn
Mindfulness for Beginners
화제의 신간
존 카밧진의 처음 만나는 마음챙김 명상
마음챙김 명상 CD 포함
존 카밧진 저음 / 안희영 옮김 / 240면 / 15,000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치료(cure)가 아니라 치유(healing)다

- 마음챙김 명상은...
- 구글, 하버드 로스쿨이 선택한 명상 프로그램
 - 전 세계적으로 700여 개의 의료기관이 '공식적으로' 선택·실행하고 있는 치유 프로그램
 - 《포춘》지 선정 500대 기업이 도입하고 있는 프로그램
 - 정부 기관, 군대, 프로 스포츠 팀의 공식 프로그램

마음챙김은 당신이 당신의 마음과 더 큰 친밀감을 형성하며, 배움과 성장, 치유에 필요한 내적 자원을 개발하는 끊임없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 또 어떻게 하면 더 큰 이해와 의미를 가지고 더 큰 행복을 느끼면서 살 수 있는지에 대한 당신의 이해를 바꾸어놓을 것입니다.

존 카밧진
10월 31일 최초 공식 방한
마음챙김 명상 프로그램 개발자
영국에서 발행하는 <왓킨스 리뷰(Watkins Review)>에서 '현존하는 인물 중 영적으로 가장 영향력이 있는 100인' 중 한 명으로 선정

정신과 전문의 전현수 원장이 들려주는 불안한 마음에 대한 또 하나의 처방전!
생각사용 설명서
교보문고 에스24, 알라딘 인터파크 인문분야 베스트셀러
전현수 저음, 256면, 15,000원
당신의 실패와 우울은 지나치게 생각이 많기 때문이다. 생각이 앞서 가면 그만큼 걱정거리가 늘어날 뿐이다
생각을 버리자